

우리도 오늘은
비가 되자

사랑 없어 거칠고
용서 못해 갈라진
사나운 눈길 거두고
이 세상 어디든지
한 방울의 기쁨으로
한 줄기의 웃음으로
순하게 녹아내리는
하얀 비, 고운 비
맑은 비가 되자

| 이해인 '비오는 날의 일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단비처럼 내리듯.
우리의 사랑이 메마른 세상에 단비처럼 부어지길.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시편 72:6 / 새번역)



구속의 시작(4)

김 종 철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지난 호(동녘 19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켜 주셨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출 19장). 언약을 맺은 후 너희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출 20장).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여러 율법과 규례들입니다(레위기). 십계명은 ‘단순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단순한 명령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듯이,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후, 모든 구약성경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운영해 가시며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를 깨닫고 세상이라는 무

대에 성도를 올려놓으신 후에, 십계명의 원리 즉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일 4:7)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의 정신’입니다.

무더운 8월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까운 이웃에게 ‘시원한 사랑의 냉수 한 잔’을 대접함으로써 이웃사랑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면 어떨까요.

(롬 13: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학생교회’는 전주동부교회의 오랜 별명이었다. 미취학 어린이 부서부터 청소년과 대학생 부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일학교가 골로루 부흥해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시절, 주로 교회 바깥에서 부러움을 담아 붙여준 이름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이 별명의 기원은 사실 교회의 위기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문제로 인한 갈등이 우리나라 장로교회들을 격랑으로 밀어 넣었던 1960년대에, 전주동부교회 역시 이 문제에 휘말려 결국 중부교회와 분열하게 된다.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었던 중직자들 상당수가 떠나버린 그 시점에 전주동부교회를 지켜낸 것은 놀랍게도 학생들이었다.

‘비어버린 예배당을 우리가 채우자’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욱 열심히 전도한 학생들의 분위기는 이후 오랫동안 식을 줄 몰랐다.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임창희 목사 부임 이후에는 주일학교 각 부서가 더욱 부흥했고, 전주서문교회에 이어 전주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조직된 대학부까지 잘 안착하며 명실 공히 ‘학생교회’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이었다.

197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주동부교회 주일학교의 성장은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됐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각 급 학교가 교회 주변에 밀집한 외부 환경과,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헌신적인 교사 등의 조건을 두루 갖춘 내부 환경이 잘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1985년에 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당시로서는 지방에서 보기 드문 규모와 내부시설을 갖춘 4층짜리 교육관을 함께 완공한 것은 전주동부교회가 다음세대 사역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학생교회’의 명성

어린이주일학교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등 3개 부서로 운영될 만큼 규모가 커졌고, 나중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부서가 운영되던 시기도 있었다. 전주동부교회

의 주일학교를 견학하기 위해 곳곳에서 찾아오는 발길들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주일학교 시절부터 자체 부서활동은 물론이고 찬양대원이나 후배 부서의 교사 등으로 열심히 섬겼다. 교회 안팎에서 펼쳐지는 각종 봉사사역이나, 해외 단기선교 등의 복음사역 뿐만 아니라 찬양의 밤을 비롯한 여러 문화사역과 문헌선교사역의 주축이 되기도 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학자, 의사, 법률가, 공직자, 예술인 등이 배출되었다.

| 정재영 기자



▲ 1975년 덕진공원에서 열린 유년부 야유회.

▶ 1967년 전국찬양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전주동부교회 대학부의 남성4층창팀.



대표 함치선 집사

나만의 피자만들기 체험 진행
전주시 덕진구 백석로 24-11
T. 063.909.9123

대표 정소연 집사

상업공간 / 주거공간 / 설계, 투시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81
상담문의 T. 063.909.0011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어갑시다!

하반기 부흥성회 강사 화종부 목사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성회 기간 그윽한 음성, 해맑은 표정으로 다가왔던 이 한 마디가 여전히 환청처럼 귓전을 울린다.

강사 목사님의 대학생 시절에 지금은 사모님이 되 어계신 당시 연인이 따뜻하게 속삭여주었다는 “폭 기 대도 돼!”라는 심금 울리는 대사라든가, 긴장과 흥미 를 동시에 자아냈던 여러 ‘마징가’들의 일화도 오래오 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 고두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들은 따로 있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2025 전주동부교회 하반기 부흥성회 강사는 화종부 목사였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에딘버러대학에서 교회사 석사과정을 마친 화종부 목사는 영국 옥스퍼드한인교회와 제자들교회를 거쳐 현재 남서울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는 중이다.

한편으로 모교인 총신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한편, 남북나눔운동 이사장과 통일선교아카데미 공동 대표를 맡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도 앞장 서고 있다.

이번 부흥성회에서 화종부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5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 특히 요한계시

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다섯 교회들에 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린시절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를 예화로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했다.

에베소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는 “회개하여 첫 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교회를 통해서는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사데교회를 통해서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회개의 메시지와 신앙적 본질을 회복하자는 교훈을 선포했다.

또한 주님의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교회를 통해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꾸중을 들은 라오디게아교회를 통해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도전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죽도록 충성하자”는 결론을 제시하며, 온 성도들이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집회를 이끌었다.

더 좋은 교회를 향한 소망, 더 나은 성도가 되고자하는 다짐과 함께 식어있던 우리 영혼 한 구석에 다시금 뜨거운 불을 지피는 소중한 자리였다. | 윤미영 기자

2025 새생명축제 9월 14일 개최

8월부터 태신자운동 등 전개



전주동부교회 2025새생명축제가 9월 14일(주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다시 생명으로,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딤후 1:10)는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들을 세우며, 태신자와 잃은 양들을 품는 축제로 준비된다. 축제를 앞두고 8

월 10일부터 전도특강을 시작으로 태신자 작정, 발대식, 목요전도 개강 등 주요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축제 당일에서는 찬양과 공연, 담임 목사 복음제시, 복화술인형극 전문가인 안재욱 소장의 특별강연, 사랑의 식탁과 선물 나눔 등의 순서가 펼쳐진다. 전도위원회는 전도수첩 제작, 전도영상물 상영, 전도선물 배부 등 다채로운 사전활동을 통해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온 교회가 기도로 나아가길! | 최조경 기자

승리하는 믿음을 아이들 영혼에

영유아부·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개최



무더위와 폭우가 번갈아 찾아와 예측할 수 없는 날씨 속에서도 여름성경학교는 어김없이 돌아왔다. 전주동부교회 여름성경학교는 7월 13일 유치부에서부터 시작했다.

총회 교육주제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테마로 실시되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유치부가 7월 20일까지, 영유아부가 7월 20일~27일까지, 유초등부가 8월 6일

~9일까지 각각 일정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각 부서별로 다양한 활동과 퍼포먼스, 코너학습 등을 통해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심어줄 계획이다. | 이승은 기자

이제는 공동체의 어엿한 일원

상반기 새가족반 수료식



6월 29일 주일 오후예배에 상반기 새가족반 수료식이 거행됐다.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수료식에서 모든 과정을 마친 20명의 새가족들이 공동체의 어엿한 일원으로 우뚝 섰다. 김종철 담임목사는 새가족들에게 수료증과 성경을 증정했고, 신도관리위원회에서는 예쁜 꽃 화분

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새가족 인도자들과 소속 목장에서 각자 선물을 준비해 전달하며 축하했다. 수료자를 대표해 송이목 성도는 "새가족반 공부를 하면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간증했다. | 이현미 기자



더위 속 음식물 주의



전주동부교회의 전문 의료인들이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각 계절별 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 비브리오 패혈증



비브리오 패혈증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나타나는 급성패혈증입니다. 사망률이 40~50%를 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바닷물 수온이 18~20℃ 이상이고, 염도가

25‰일 때 많이 발생합니다. 수온이 17℃ 이하이거나, 소금기 없는 민물 혹은 고염도 상태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잡히는 조개나 새우같은 어패류와 갑각류 또는 횡감 생선을 익히지 않고 생식할 경우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리게 됩니다. 질환 발현은 늦어도 36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복통 발열 등 전신증세가 나타나거나, 발과 손 또는 몸통에 출혈성 수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비교적 빠르게 괴양과 괴사로 진행됩니다. 동시에 전신부종, 저혈압 등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항생제와 수액으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여도 저혈압 증상과 괴사 증세가 확실해지면 사망률이 90%에 이르게 되어, 아주 위험한 경과를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은 연간 100명 미만이고, 통상 40명 수준입니다.

주로 40대 이후 남자환자가 호발연령(발병하기 쉬운 연령)이고, 건강한 사람의 사망률은 10% 정도입니다. 특히 위험한 사람들은 간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간경화, 간염을 앓고 있거나 간수치가 높은 사람 그리고 당뇨병자와 신부전환자 혹은 쇠약하거나 고령인 사람들은 절대로 생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바닷물이 몸의 상처부위에 닿지 않게 입수를 금해야 합니다.

어패류는 5℃ 이하에서 냉장보관하고, 60℃ 이상 80℃ 정도에서 15분 이상 가열하여 드시면 안심입니다. 끓여도 세균이 죽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에 돌고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 옷닭



여름철 삼복더위를 이기기 위해 보양식으로 닭요리를 먹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좋은 풍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때 각종 부재료를 함께 넣어 맛을 더하게 하는데, 그 중에 나무를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 이 습관을 강조하여 사업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옷에는 우루시올이란 물질이 있어, 급성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전신증상을 일으킵니다. 가려움증, 발적(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 부종 등으로 약 2주간 고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간세포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옷닭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먹고 있어 피부과 쪽에서는 세계적인 흥밋거리입니다. 유사한 알레르기 증세를 일으키는 식품으로는 캐슈너트, 파스타치오, 은행열매, 페루고추, 망고 등이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흔한 질환으로 고생은 많이 하지만, 사망률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주의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송윤강 장로 (군산 원광효도요양병원 원장)

영화

무명(無名)

“나는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2025년 6월, 한국 개신교선교 140주년과 광복 80주년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특별한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개봉하였다. <무명>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에는 서양 선교사들의 그늘에 가려졌던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한국명 송승)와 오다 나라지(織田樞次·한국명 전영복)의 여정이 담겨있다. 하정우 배우의 내레이션을 통해 두 인물이 남긴 사랑과 헌신과 화해의 메시지를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한다.



영화 <무명>은 두 인물의 삶을 보여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지 관객들에게 묻는다. 조선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며, 복음의 빛을 전한 두 사람의 발자취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과 사랑을 발견한다. | 김형열 기자



노리마츠 마사야스(1863-1921)

는 일본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로, 1900년부터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며 가난한 조선인들과 삶을 함께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음식과 옷 차림을 따라하며 이방인의 모습을 버린 채 철저히 조선인의 이웃이 되기를 택했다. 1921년 생을 마감한 그는 자신의 소망대로 부인과 함께 수원동신교회 부지에 묻혔다. 특히 그의 부인은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4남매를 남기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 선교의 고단함과 헌신의 깊이를 더욱 절절히 전했다.



또 한 명의 인물 오다 나라지(1908-1980)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를 실천한 인물이다. 불교 집안에서 자란 그는 중학교 졸업 후 전도를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고베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조선인들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목도했다. 기도 중 ‘조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21세의 젊은 나이에 목포에 도착한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위해 사죄와 위로의 사역을 이어갔다. 신사참배 거부로 일본 당국에 체포돼 고문 받고, 결국 강제 추방까지 당했지만 조선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

<동넙>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 김 종 철

편집인 : 안 효 건

제작팀 : 정재영(팀장)

김형열 윤미영 이승은 이현미 정소연 최조경

발행처 : 전주동부교회 전도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도로 88

전화 (063) 275-7760 홈페이지 www.cjdb.or.kr

<동넙> 제작을 후원하신 분들

고정희 곽약훈 구길주 권선주 김광휘 김극명 김금자 김남기 김덕기 김미영 김병국 김숙희 김옥순 김은숙 김장중 김재현 김중후 김진숙 김효순 노명우 박선규 박영대 박영삼 백성연 백은순 봉옥란 소화수 손주상 안한성 안효건 양이성 양화영 오윤자 원복주 은경옥 은화삼 이남심 이동주 이복구 이상우 이선민 이승은 이정숙 이정희 이준례 이현미 이홍승 이홍재 인정환 임선영 임순 장희선 전봉권 정규윤 정소연 정숙자 정재영 진서금 진금자 채동명 최근수 최금미 최남열 최동욱 최명국 최범석 최병국 최순미 최완주 최원진 최조경 하기찬 한준석 홍영란 봉사위원회 (가나다순 · 2025.07.26. 현재)

전도편지 <동넙> 제작을 후원하실 분들은 1구좌당 5000원씩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9-3293494 이현미

당신을 동넉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름철에는 맑고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특히 6~9월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내륙은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극심한 무더위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하지만 덥고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그 땅은 성경이 약속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땅이라.”(신명기 8:8)

이 모든 작물은 강한 햇살과 거친 땅에서도 자라나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요즘 한국의 여름도 점점 더 이스라엘의 기후를 닮아가는 듯합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뻐뚱어진다"는 속담은 옛말이 되어버렸고 훨씬 길고 강렬한 더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삶도 때로는 메마르고 고단한 사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막같은 계절이 지나야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무더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올여름, 전주동부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베푸시는 참된 위로와 쉼,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소망을 함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전주동부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전주노회 소속으로, 1933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정체성과, '학생교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음세대 사역에 전념하여 큰 열매를 거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새벽예배		매 일 05:00		본당
주일 1부		일요일 09:00		본당
주일 2부		일요일 11:00		본당
찬양예배		일요일 14:3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19: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20:30		본당
영유아부		일요일 11:00		교육관 1층
유치부		일요일 11:00		본당 지하 1층
유초등부		일요일 11:00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일요일 09:00		교육관 3층
대학청년부		일요일 13:00		본당 4층
목장모임		일요일 13:30		지정 장소

오시는 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대로 88 063) **275-7760**

<동넉>은 전주동부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jdb.or.kr)와 네이버카페(cafe.naver.com/dongnyeok) 페이스북(www.facebook.com/groups/dongnyeok)을 통해서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전도대상자 발송, 구독소감, 후원, 이벤트 등의 문의는 네이버카페와 이메일(dong_nyeok@naver.com)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